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구덕망개소리



- 일시 1997년 10월 15일~10월 17일
- 장소 전라북도 · 익산시

부산광역시



백제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역사의 도시 익산에서 민족 정기와 맥을 계승하기 위한 「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400만 부산 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얼을 심고 선조들의 정신세계를 체험토록 하기 위한 「제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 익산시민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남겨 주었습니다.

이중에서도 민속은 애뜻한 삶의 애환과 생활 의지를 조화와 멋으로 승화시키며 서로 돕고 아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심성을 가꾸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확산과 의식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민족의 정서와 멋이 담겨진 문화 유산들을 제대로 보존하여 가꾸지 못하고 이의 소중함을 인식치 못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선인들의 정신적 뿌리를 인식, 아름답고 훌륭한 민속을 계승키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숭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맥을 잇고 있음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부산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왔던 「구덕망개 소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망개소리는 먼 옛날부터 집터나 큰 건물의 터를 다질때 부르던 노동요로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져 왔으며, 협동정신을 보여주는 민속으로서 다른 지방과는 달리 오행법과 오방지산누르기가 특색입니다.

모쪼록 겨레의 축제인 이번 경연대회가 민족문화를 바르게 인식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며 선인들의 얼과 멋을 계승하여 자랑스럽고 보람찬 한마당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15.

부산광역시장 문 정 수



고증 및 지도

성명	소속	직위
김허남	(사) 부산농악보존협회	이사장(국회의원)
강용권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제4분과위원장(동아대명예교수)
이의경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위원(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구덕망개소리 출연자명단

(총지휘·김한순)

역할	성명	역할	성명
작은망개소리	하준섭	원기	최진
큰망개소리	하정규	동방청제지신기	남효홍
쾌지나칭칭소리	김귀엽	서방홍제지신기	박현호
망개꾼	김희택, 문성철, 김주찬, 남유생 김만식, 김수근, 정호범, 최기인 성도용, 유상두, 김인식, 주학로 임병순, 조준만, 전기용, 천명신 지일영, 김상휘, 이경택, 박평수 이상인, 백성호, 정시찬, 김명길 이일두, 현병환, 강성해, 우윤식 백한석, 최경호, 김현엽, 이경철 김병철, 박종길, 김상호, 이병우 이진철, 김영일, 최광표, 박준재 강상기, 조재형, 윤영식, 임상민 김규태, 최장복, 박정식, 김영훈 박준형, 최영호, 이상윤, 조영래 최연석, 김호진, 김정민, 조규수 조정혜, 설정길, 이동일, 정기봉 김규, 김주환, 김수태, 김인석 조현도, 이일성, 서동명, 김복식 김정희, 하태균, 김경섭, 김구경 김일석, 송환석, 이정기, 이영우 윤병혁, 조규수, 조정치, 설정길 이동일, 정기봉	남방백제지신기	이주현
		북방흑제지신기	이형곤
		중앙황제지신기	이창식
		쇠	손복동
		징	이병렬, 정연태
		대북	정우수, 김종기 김재현
		장고	성낙길, 강신일 박철석, 김한동
		주인	김한순
		안주인	김귀엽
		아들	김호성
		딸	김미정
		사대부	이용식
		풍수	김상현
		지계꾼	오일남, 김종육, 박범식, 배이한
가래꾼	최한섭, 이진일, 도용우, 이상환 박정용, 박규환, 한창호, 허준석 이일기, 최종대, 박정호, 조용식		

구덕 망개 소리

먼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으로 특히 신라시대부터 성행했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명칭은 각 지방마다 다르고, 장비물도 각각 다르며 소리도 다르다. 부산에서는 소리를 망개소리라 하고, 장비물은 돌로 사용해 왔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망개를 주로 사용하여 온 것은 집터에 주춧돌을 놓을 자리와 망개(돌뭉치)로 땅을 다질 때 부르던 노동요로, 전해오는 얘기로는 범어사 사찰에서 부터 유래하여 다대침사, 동래부사 등 관청 건물이나 대가집 집터를 다지는데 행해졌다고 한다.

부산 구덕산 아래 대신동 일대에서는 해방 전부터 망개를 해오던 박수덕 96세(사망, 서구 서대신동), 정호범 76세(서구 동대신동 2가 34)옹과 김상휘 81세(서구 서대신동 3가 628)옹에 의하면 50년전 대신동 일원에서 큰 집터를 다질 때 망개를 사용하여 왔으며, 한예로 서구 토성동 3가 1번지 현재 경남중학교(구, 경남고등학교 1942. 4. 30. 개교) 자리와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현재 경남고등학교(1956. 11. 30.)건물 건립때 망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후 1983년 부산 구덕망개소리 재현을 위하여 정호범(망개줄잡이역) 김상휘(주인역) 신임수(사대부역) 하준섭(작은망개 선소리역) 하정규(큰망개 선소리역) 김귀엽(쾌지나칭칭 선소리역) 손복동(상쇠역)과 같이 박수덕에게서 전수하여 오다가 박수덕 사망으로 김한순을 발굴책임자로 하고 1994년 2월 용두산 공원에서 구덕망개소리 시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망개소리는 노동력 및 협동정신을 이루는데 있고 망개소리에는 작은오방망개소리(후렴소리) 큰망개소리(후렴소리) 쾌지나 칭칭소리(후렴소리)와 함께 한다. 각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으며 부산지역의 특색은 오행법과 오방지신 누르기가 특색이라고 한다.

제1과정 작은오방망개소리-후렴소리 제2과정 큰망개소리-후렴소리
제3과정 쾌지나 칭칭소리(마당밧기)-후렴소리

구덕망개소리 연혁

- 1983년 4월 10일
= 구덕망개소리 발굴개시
- 1994년 2월 10일
= 구덕망개소리 시연
- 1994년 5월 27~5월 28일
= 제23회 부산 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참가 경연부산 부산시장 최우수상 수상
- 1994년 10월 29일~10월 21일
=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산직할시 대표로 참가 노력상 수상
- 1995년 5월 19일~5월 20일
= 제24회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참가 경연부문 부산광역시장 우수상 수상
- 1995년 11월 4일
= 제1회 구덕망개소리 발표회
- 1996년 5월 29일
= 제2회 구덕망개소리 발표회
- 1996년 6월 1일
= 제25회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참가 부산광역시장 우수상 수상
- 1997년 5월 23일~5월 25일
= 제26회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에서 경연부문 부산광역시장 최우수상 수상



총지휘
김한순



▲입장식 장면



▲인사에 앞서
정열하는 모습



상쇠
손복동



▲오방지신 제만을 올리는 장면

주 인 : 여보소 풍수양반
우리집 집터를 잘 하나 잡아 주오

풍 수 : 예.
이 집터를 잡아 보니, 좌우편에는 청룡 황룡이 둘러있고, 앞을 바라보
니, 천년만년수가 두루 흘러가니, 대명지로다.
이 터에 집을 지으면 육판서 낱을 자리요.
팔대정승이 날 자리요. 거부장자가 될 자리로다.
자! 이곳에 터를 잡았으니 이곳에 오방 지신 제만을 잘 지내고
터를 닦으쇼!



▲풍수가 집터를 잡는 장면

주 인 : 여보소! 일꾼들

일꾼들 : 예.

주 인 : 우리 집터를 잘 닦아 주소.

일꾼들 : 예.

일꾼들 소리

(선 소 리)

(후 령)

여여차 가래야
 닦읍시다. 닦읍시다
 이 집터를 닦읍시다
 이 집터를 닦은 후에
 이 집에다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달고
 산수좋은 구덕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여기 저기 심어놓고
 학발양친 봉양하여
 세세익수 하여보세.
 여보시요. 가래꾼들
 기운차게 당겨주소.
 여여차 가래야
 이 집터를 다 닦았소.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여여차 가래야



▲ 일꾼들이 집터를 닦는 장면

작은 망개 헤실

이 망개는 타지역에서 하는 다른 것과는 다르다.

첫째, 망개와 줄 사용법이 다르다. 타지역에서는 주로 망개 돌 1개와 두 줄을 많이 사용한다.

부산구덕 망개소리는 작은 망개들은 망개 돌 다섯개를 사용하여, 줄은 망개돌 한개에 네줄을 사용한다.

특징은 오방을 고루 다지며, 오방지신을 눌러 집터를 잘 다지는 뜻과 오방잡귀를 몰아내는데 있다. 오방이라는 것은 동, 서, 남, 북과 중앙 등 다섯 곳을 말한다.

작은 망개소리는 일꾼들이 오방에서 작은 망개 선소리에 맞추어 후렴을 제창하며 크게 소리내어 집터를 고루 다지는데 협동력과 노동력을 많이 올리는 데 뜻이 있다.



▲작은 망개 돌을 다지는 장면

여보소 망개꾼들 작은 망개로 오방지신을 잘 다져 봅시다.



선소리

하 준 섭

작은 오방망개

(선 소리)

여여차, 망개야
 이 망개가 뭐 망개인고.
 여러분의 망개로다.
 천개 망개는 공중에 놓고.
 우리 망개꾼들은.
 소리맞춰 잘도 한다.
 다져주소, 다져주소.
 동방지신을 다져주소.
 다져주소, 다져주소.
 서방지신을 다져주소.
 다져주소, 다져주소.
 남방지신을 다져주소.
 다져주소, 다져주소.
 북방지신을 다져주소.
 다져주소, 다져주소.
 중앙지신을 다져주소.
 다져주소, 다져주소.
 오방지신을 다졌으니.
 다져주소, 다져주소.
 여보시요, 여러분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우리나라 팔도강산.
 곳곳마다 망개소리.
 여여차, 망개야
 망개소리 크게 내소.
 팔도강산중에서도.

(후 령)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큰 망개 예설

이 망개는 다른 망개와 다른 의미가 들어 있다.

큰 망개는 기둥 주춧돌 놀자리를 다진다.

큰 망개돌은 줄이 다섯 개며, 당기는 것은 오향법과 오방지신을 누르는 법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각자가 살 곳을 옛부터 집터 방위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 것을 오향이라고 하며, 이 망개돌과 망개소리에 맞추어 그 집터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오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다.



▲큰 망개 돌을 다지는 장면

여보소 망개군들 작은 망개는 잘다졌으니, 큰 망개로 이 집터 주춧돌 놓을 자리를 잘 다져 봅시다.

큰 망개



선소리
하 정 규

(선 소리)

어여차, 망개야
 이집 터전을 바라보세
 남산은 봉이로다.
 주산은 당산이로다.
 갑산은 지자로다.
 여산은 도읍이로다.
 천간은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시고.
 인오에 숭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시절에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서방문이 열리셨네.
 그때 그시절에
 남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북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오구제석 천왕문이 열리시고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 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 있고

(후 령)

어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네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충청도라 태백산은
금강이 둘러있네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네
제주도라 한라산은
사면바다가 둘러 있고
맥맥이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골골이 성황님네
자리잡던 성황님네
터를 잡던 성황님네
오동나무 상상봉에
봉황이 높이 떠서
천년지동 만년가옥
주추돌에 땀이 나고
팔목기둥에 좁이 나네
만인간의 소원성취
부귀영화를 마련하여
오는 길에 복을 주고
가는 길에 명을 주소
명산대천 둘러보세
금정산을 바라보니
명산대천이 분명하네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금정산에 정기를 받아.
 황령산이 되었구나.
 황령산의 정기 받아.
 천마산이 되었구나.
 천마산이 정기 받아.
 해운대 장산이 되었구나.
 장산에 정기 받아.
 다대포 무지개산이 되었구나.
 무지개 산이 정기 받아.
 용두산이 되었구나.
 용두산에 정가 받아.
 영도 보알산이 되었구나.
 보알산의 정기 받아.
 구덕산이 되었구나.
 구덕산에 정기 받아.
 이 집터가 되었구나.
 명산대천이 분명하다.
 좌우에는 청룡백호가 둘러있고.
 백호쪽을 바라보니.
 천년만수가 흘러오네.
 이 집터를 바라보니.
 자손이 나면 정승이 나고.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되고.
 소가 나면 왁때가 나고.
 개가 나면 삽살개가 나고.
 닭이 나면 봉황이 날자리로다.
 놀러주소, 놀러주소.
 천년만년 놀러주소.
 부귀영화를 누리주소.
 큰 망개소리는 다했소.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여여차, 망개야

주인: 여보소 여러 망개군들 일도 많이 하였소
 자, 내가 안주와 술밥간을 많이 마련하였으니 부인네는 술밥간을 빨리 갖다
 주소.
 여러분들 많이 자시오. 자시오
 자, 이제 많이 먹었으니 여러분 경상도 덧볶기로 마당밭기를 흥겹게 울리소



▲ 술과 밥을 부녀들이 가져오는 장면



▲술과 밥을 먹는 장면



▲마당밟기를 하는 장면

쾌지나 칭칭소리 해설

우리 인생이 노동 일을 많이 할때, 그 고달프고 힘든 것과 우리들의 한을 달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쾌지나 칭칭소리도 이와 같은 풍속에서 불려지고 있으나 구덕망개 쾌지나 칭칭소리는 집터와 그에 따른 내용으로 가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쾌지나 칭칭 소리장면

여보소! 우리가 쾌지나 칭칭소리를 해봅시다.

쾌지나 칭칭소리



선소리
김귀엽

(선 소 리)

쾌지나 칭칭나. 네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남날적에 낫건먼은
어떤 사람 복이 많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공명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빈곤하여
부귀공명을 못살아보나
칭칭하늘에는 잔별도 많소
잔술밭에는 팽이도 많소
시내강변에는 자갈도 많소
이 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소
풀어내세, 풀어내세
수심가슴을 풀어내세
살고지고,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우리 인생 초록인생
죽어지면 허사로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자리에 오신 손님
일심봉청 하옵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후 렬)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 소리장면



▲마지막 인사장면





